

건축가 정기용

건축이란 삶을 조직하고 반영하는 결과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건축가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조직하고 반영하는 것의 결과로서 건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건축가 정기용(63, 기용건축 대표) 씨는 건축의 근본적 가치를 실천해온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다. 일반인들에게는 ‘기적의 도서관’ 건축가로 익숙해진 이름이지만 건축에 조금만 관심 있는 이라면 진즉에 그의 아우라를 경험해 보았을지하다.

사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현대건축을 ‘기술’이나 ‘예술’이 아닌 ‘삶을 조직하고 반영하는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 대표가 교육자, 저술가,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경계 밖 활동을 통해 건축을 통한 소통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출간되고 있는 대중화된 ‘건축서’에 대한 정 대표의 생각은 일단 긍정적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건물을 짓고, 또 부수는 우리나라지만 정작 건축과 관련된 읽을거리는 그간 부족했습니다. 대중화된 건축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반갑지만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다변화된 건축서가 부족한 것은 아쉽습니다.”

그는 건축물이 갖는 의미는 결국 주변과의 관계 맺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세상의 모든 땅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축은 태생이 총체적, 공공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추천한 첫 번째 건축서가 건축가들이 자신의 집에 대한 사유를 담은 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건축가는 어떤 집에서 살까》(김원 외 지음 | 서울포럼)는 집에 대한 건축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유년시절을 보냈던 기억의 집,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살고 싶은 꿈의 집. 이 책

은 건축가들이 가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억과 기대를 삶의 한 방식으로 주택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정 대표는 한국의 현대건축에 초점을 맞춘 책들도 추천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송효상 외 지음 | 열화당)와 《아파트 공화국》(발레리 줄레조 지음 | 길혜연 옮김 | 후마니타스)은 이 시대 건축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는 파주출판도시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경험과 사유를 담았는데, 서양과 다른 역사적, 풍토적 맥락을 지닌 이 땅에서 건축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은 젊은 프랑스 지리학자 줄레조가 몇 년 동안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가 계급의 경계가 된다는 저자의 고찰은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시사점을 지닙니다.”

“이 시대의 건축이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의 결론은 “건축가는 근본적으로 모든 주제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평소 지론과 닮아있었다. 공간으로 철학을 구현하는 건축가, 그가 추천한 책들을 통해 현대건축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주연**

